

고등학생들의 성별 조절점 방향 실태 및 환경 행동과의 관련성 조사

박진희(시흥고등학교)·장남기(서울대학교)

‘강화 조절점(Control of Locus of Reinforcement)’은 책임감있는 환경 행동의 형성을 위한 주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는 ‘사람의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으로 정의되는 심리학적 구인으로서 외적 조절점과 내적 조절점의 두 방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내적(internal) 강화 조절점은 책임감있는 환경 행동의 예측 변인으로 중요하며, 최근에는 두 변인 간의 관련성을 측정할 수 있는 타당성있고 신뢰성있는 도구, ‘환경 행동 내적 조절점 지수(The Environmental Action Internal Control Index:EAICI)’가 개발되었다.

본 연구는 EAICI를 이용하여 고등학교 학생들의 조절점의 방향 실태와 책임감있는 환경 행동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결과에 의하면 전체 학생(303명)의 환경 행동 내적 조절점 지수의 평균은 99.83으로 나타났다. 남학생(158명)과 여학생(155명)의 평균 지수는 각각 95.10, 104.56 로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강한 내적 조절점을 가지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재사용 재순환을 통하여 쓰레기를 줄이는 행동과 타인에게 재사용 재순환을 통하여 쓰레기 양을 줄이도록 설득하는 행동에서 4.31, 4.05의 높은 지수를 보여주었고, 타인에게 환경 논쟁점에 대한 탄원에 서명하도록, 우표를 떼어내고 오래된 봉투를 다시 사용하도록, 타이어에 적당히 바람을 넣도록 설득하는 행동에서는 각각 3.09, 3.09, 3.04 점의 낮은 지수 수준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신이 직접 실천하는 행동이든 타인에게 설득하는 행동이든 간에 책임감있는 환경 행동에 대한 믿음의 확실성 정도, 즉 내적 조절점 지수는 각 사건에 접할 기회와 경험 정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